

독서활동지

# 판데모니움

글 유상아 | 소원나무 | 2026

학년 / 반 \_\_\_\_\_

이름 \_\_\_\_\_



## 주제

책을 읽고, 내 생각 확장하기

## 키워드

#우정 #성장 #가족 #사이버 폭력  
#청소년 범죄

## 대상 학년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2학년

## 권장 차시

8차시

## 수업 활용

- 자유 학기 수업
- 한 학기 한 권 읽기
- 독서 동아리 활동

## 작성자

서울 한울 중학교 김호정 교사

## 교과 연계

- [중 1-1] 국어 4. 갈등을 넘어
- [중 1-2] 국어 1. 성찰하며 성장하며
- [중 1] 도덕 2. 타인과의 관계(가상공간의 윤리)
- [중 2] 도덕 2. 타인과의 관계(갈등과 폭력, 성 윤리)

## ■ 활동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비고
1	읽기 전	제목의 의미를 헤아려 보기	모둠 활동
		청소년을 둘러싼 사이버 폭력 관련 영상을 보고 생각 나누기	
2~4	읽기 중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청소년)의 특성 파악하기	모둠 활동
		소설 속에 등장하는 어른의 모습은 어떠하며, 은호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각각의 어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보기	
		은호네 가족과 선정이네 가족이 처한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을 비교해 보기	
		선정이가 은호에게 어떤 부탁을 했으며, 은호는 그 부탁을 어떻게 들어 주었는지 인과 관계와 시간 순서를 따져서 정리해 보기	
5~6	읽기 후	소설 속에 드러난 우리 사회의 실상 들여다보기	모둠 활동
		소설 속 청소년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가장 공감하는 / 문제적인 인물은 누구인지 말해 보기	
		등장인물의 행위, 동기 등을 고려하여 각 인물의 앞 이야기, 혹은 뒷 이야기를 써 보기	개별 활동
7~8	심화 활동	자료를 참고하여, '성 착취 동영상'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토의해 보기	모둠 활동
		영상을 참고로, '온라인 도박'이나 '소셜 카지노 게임'의 위험성은 무엇이며 위험을 막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토의해 보기	모둠 활동
		선정이가 괴테의 『파우스트』를 비틀어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를 비판한 것처럼, 이와 비슷하게 비판할 만한 다른 작품이 있는지 찾아보고 생각을 나누어 보기	모둠 활동

## ■ 성취 기준

차시	활동 내용	교과	성취 기준
1	제목의 의미를 헤아리며 내용 예측하기	국어 문학 독서	[9국02-03] 독자의 배경지식과 글에 나타난 정보 등을 활용하여 글에 드러나지 않은 의도나 관점을 추론하며 읽는다.
	소설 이해를 위한 경험 나누기		
2 ~ 4	등장인물 파악하기		[9국05-03] 인간의 성장을 다룬 작품을 읽으며 문학의 가치를 내면화한다.
			[9국05-04]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특성과 효과를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9국05-09] 문학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고 공동체의 문제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9국05-02]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을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사건의 인과 관계 파악하기		
5~6	소설 속에 반영된 현실 파악하기		[9국05-05]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등장인물의 행위와 선택, 그들의 동기에 대해 비평해 보기		[9국05-02] 갈등의 진행과 해결 과정을 파악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등장인물에 대한 비평을 바탕으로 그들의 앞 이야기 혹은 뒷 이야기를 상상하여 써 보기		[9국05-08] 근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해석하고, 다른 해석들과 비교하여 자신의 해석을 평가한다.
7~8	소설에 그려진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해 보기		[9국01-07] 토의에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한다. [9국02-06]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이나 자료를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소설 주제와 관련하여, 소설에서 비판한 텍스트에 대해 검토하고, 주변에서 비슷한 텍스트를 찾아 비평해 보기		[9국05-05]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한다. [9국05-09] 문학을 통해 타자를 이해하고 공동체의 문제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 아래 보기의 글을 참고하여, 소설의 제목 ‘판데모니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단어의 원래 의미를 검토하며, ‘판데모니움’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게임의 내용과 방식은 어떨지, 보안 테스트를 의뢰받은 주인공 은호(화이트 해커를 꿈꾸는 청소년)를 중심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여러분이 상상한 바를 말해 봅시다.

어젯밤 맛보기로 플레이한 온라인 게임 회사 넥스트의 신작. <판데모니움> 오프닝 영상이 밤새 꿈속에서 어지럽게 재생되었다. <판데모니움>은 시간을 넉넉하게 주겠다고 넥스트의 프로젝트 매니저님이 보안 테스트를 부탁한 게임이다.

악마전 혹은 복마전으로 불리는 ‘판데모니움’은 『실낙원』에 등장하는 지옥의 도성이다. 창조주에게 반역한 죄로 지옥에 떨어진 모든 악마가 총집결하는 무법 지대. 설정이 흥미로워 다양한 게임의 테마나 배경으로 자주 등장한다. 프로젝트 매니저님은 올가을에 출시 예정인 <판데모니움>이 국내 게임 시장의 판도를 뒤엎을 초대박 작품이 될 거라고 단언했다. 각종 규제도 그동안 국내에서 순한 맛으로만 제공되던 소셜 카지노 게임의 본격적인 스타트를 끊은 게임으로 모바일과 PC를 넘나드는 멀티 플랫폼을 제공한다고 했다. 솔깃한 의뢰비에 덩석 제안을 받아들여긴 했지만, 고3 개학을 앞두고 괜한 부담을 떠안았다는 생각이 들었다.(『판데모니움』, 14쪽)

- <판데모니움>은 어떤 내용과 방식의 게임일까?

- 은호를 중심으로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다룬 영상을 함께 보고, 여러분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례를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어떤 폭력을 경험했는지,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사이버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분이 실천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지 등을 이야기해 봅시다.)

영상: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젠더온] 청소년이 말하다 - '청소년이 말하는 사이버 폭력'

<https://genderon.kigepe.or.kr/geme/brd/selectContentBoardArticle.do?nttId=2294&nttAll=&moreType=&keyword=&frstRegistPnttmBgn=&frstRegistPnttmEnd=2025-09-29&bbsId=&dataObj=&mainPage=Y&nttSj=>

-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청소년을 중심으로) 정보를 정리해 봅시다.

이름	특징(성격, 외모, 나이, 성적, 가정 환경, 하는 일, 장래 희망, 관련한 주요 사건 등 소설 속에 나오는 정보를 메모하며 읽어 보세요.)
차은호	
장지훈	
주선정	
손지우	
은시온	
지선희	
정태경	
한도영	
강영진	
길성배	

- 소설 속에 등장하는 어른이 보여 주는 모습은 어떠한지 정리해 봅시다.

이름	특징(성격, 관련한 주요 사건, 문제를 대하는 태도, 은호가 선정의 부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하는 역할 등 소설 속에 나오는 정보를 메모하며 읽어 보세요.)
은호 아버지 차영훈	
은호 어머니	
사서 선생님 김효정	
MBS 기자 김화식	
선정 아버지 주동훈	
선정 어머니	
정신과 의사 손동호	
형사 황준호	
조끼 쌤	
다니엘 정	

- 은호네 가족과 선정이네 가족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을 비교해 봅시다.

	은호네 가족	선정이네 가족
부모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겪은 아픔과 그 아픔을 극복해 가는 과정		

- 선정이가 은호에게 어떤 부탁을 했으며, 은호는 그 부탁을 어떻게 들어주었는지 소설을 읽어 가며 정리해 봅시다.(인과 관계와 시간 순서를 따져서 정리해 보세요.)

읽기 후 1

소설 속에 반영된 현실 파악하기

5~6  
차시

- 소설 속에 드러난 우리 사회의 실상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특히 청소년이 어떠한 고통으로 내몰리고 있는지 말해 봅시다.

읽기 후 2

등장인물의 행위와 선택,  
그들의 동기에 대해 비평해 보기

5~6  
차시

- 소설 속 청소년 중에서 가장 공감하는 인물 혹은 문제적인 인물은 누구이며, 그 까닭은 무엇인지 말해 봅시다.

읽기 후 3

등장인물에 대한 비평을 바탕으로 그들의  
앞/뒷이야기를 상상하여 써 보기

5~6  
차시

- 소설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의 행위, 선택, 동기 등을 고려하여 각 인물의 앞 이야기(왜 소설 속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혹은 뒷이야기(이후 어떤 미래를 펼쳐 갈지)를 써 봅시다.(세 사람을 골라 이야기를 써 보세요.)

## 심화 활동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문제의 1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기

7~8  
차시

- 아래 자료(신문 기사와 영상)를 참고하여, '성 착취 동영상'을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토의해 봅시다.

자료 1. 신문 기사([http://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9574&utm\\_source=chatgpt.com](http://www.psychiatric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9574&utm_source=chatgpt.com))

### 왜곡된 관계가 만들어 낸 집단적 가학성-N번방 사건 사회적 죽음으로 세상 보기

정신의학신문 2020. 5. 11. 이광민 정신의학과 전문의

#### N번방 사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단편적인 정보만으로도 내용을 깊게 들여다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소위 N번방 사건에 대해 느끼는 첫 감정은 비슷할 겁니다. 어떻게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이렇게 잔혹할 수 있는지, 처음에는 극단적인 범죄 집단의 소행일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가해자로 언급되는 걸 보니 평범해 보이는 청년에, 사회복지요원에, 복무 중인 군인에, 미성년자라고도 합니다. 이런 끔찍한 범죄의 가해자가 우리 주변에 있을 것을 생각하면 충격입니다. 게다가 관련된 유료 가입자가 수만 명이라고 하니, 이건 개인의 일탈 범위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왜 이 범죄 행위의 폭주를 막아낼 수 없었을까요.

#### 사건의 특징

N번방 사건을 들여다보기 위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몇 가지 특징을 생각해보았습니다.

##### 1) 사회적 사각지대를 만들어 낸 폐쇄적 디지털 환경

이번 사건에서 정보, 영상을 주고받는 사이버 환경은 특별합니다.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은 다른 인터넷 환경보다 익명성이 높고 폐쇄적입니다. 특히 다크웹은 관련 지식이 없으면 찾아서 들어가기도 어렵습니다. 여러 범죄 행동을 해도 흔적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법규가 미치지 않는 어둠의 세계에서 내면의 극단적인 욕구를 표출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서로 가면을 쓴 채, 무슨 짓을 하더라도 들키지 않을 거라고 믿는 비밀스러운 공간이 사회적으로 왜곡된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 2) 피라미드식으로 서열화된 집단

이런 비밀스럽고 폐쇄적인 환경에, 등급에 따라 피라미드식으로 서열화된 집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소위 방장으로 언급되는 상층부가 범죄행위를 주도하고, 가상화폐로 내는 금액이나 범죄행위에 가담하는 정도에 따라 높은 조직으로 올려줍니다. 수만 명에 이르는 참여자들은 이 피라미드 조직 내에서 더 높은 집단에 소속되기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와 가상화폐를 내

고 범죄행위에 동참합니다. 결국, 그 집단에서 성적 범죄행위는 일반화된 형태이자 공동의 목적으로 인식됩니다.

### 3) 착취적이고 가학적으로 왜곡된 성 인식

이렇게 모인 집단은 성 착취 영상의 제작과 공유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범죄적인 성 영상물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극단적으로 왜곡된 성 관념이 들어 있는 착취적이고 가학적인 영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언론에 언급된 내용만으로도 가해자들의 왜곡된 성 인식은 비정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성 인식을 주요 가해자가 주도하고 그 집단 내의 수만 명의 참여자가 그대로 쫓아가며 공유했습니다.

### 4) 주요 가해자의 어린 나이

사건이 밝혀지며 주요 가해자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다는 게 알려지면서 우리의 생각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N번방 사건은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잔혹한 범죄 집단과 달랐습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해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지 마주칠 수 있는 학생과 청년이 이 사건의 주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까지 생각한다면 더 어린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왜곡된 성 인식에 다수의 미성년자와 청년이 익숙해져 있는 건 아닌지, 그렇다면 N번방 다음에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걱정스럽습니다.

## 관계와 소통에 기반한 성관계

성관계는 기본적으로 애정에 기반한 남녀 간의 소통 행위입니다. 서로의 동의하에 자신과 상대방에게 성적인 만족을 전달하기 위해, 서로 맞춰 주려 노력하는 “관계 행동”입니다. 한쪽 입장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니라 상호 간의 “소통 행위”입니다. 통상적인 소통과 공감, 관계의 경험이 없다면 성관계는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 관련 행동에서 관계가 아닌 일방적인 강압만 있다면, 그 순간 성 행동은 폭력이 됩니다. 일방적인, 폭력적인, 가학적인 성행위를 욕구로 추구하고 있다면 서로 간의 동의가 있건 없건 성인식에서 비정상적인 왜곡이 있는 셈입니다.

## 관계 경험의 부재

저는 이번 사건의 가담자들이 과연 정상적인 이성 간의 관계 경험을 가졌던 적이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정도로 파괴적이고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추구하고 있다면, 소통과 관계에 바탕을 둔 남녀 관계 경험을 가지지 못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일방적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만을 경험하며 왜곡된 성관념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통이 없이, 단순히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성 행동을 이어갔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곡된 성 인식은 이성 간의 소통을 방해하고,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게 하고, 자신을 더욱 고립되게 만듭니다.

## 사회적 감시망의 붕괴

다만, 이런 왜곡된 성 인식이 왜 집단적으로 퍼졌을지는 사회적으로 고민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설령 일부가 왜곡된 성 관념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회적 자정작용을 통해 정상적인 인식으로 조정되어 갑니다.

사회관계 속에서는 일정 부분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감시망이 있습니다. 일탈 행동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거나 나와 내 가족,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면, 그걸 막아내기 위해 서로 노력하게 됩니다. 문제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조사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감시망이 사건이 한참 진행된 이후에야 작동했습니다. 수만 명에 이르는 N번방 참여자

사이에서 일어났어야 할 사회적 감시망은 작동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지인들이 분투하며 사회적으로 알렸습니다. 집단 내에서 감시망이 작동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본다면 폐쇄적이고 은밀한 사건의 환경도 있지만, 집단적으로 공유된 인지 왜곡을 주된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성 인식에 관한 집단적인 인지왜곡

집단의 힘은 의외로 무섭습니다. A라는 인식을 가진 다수의 “집단 A” 내에 B라는 인식을 가진 소수의 “집단 B”가 들어오면, “집단 A”가 가진 정보의 편향성으로 인해 점점 A라는 인식이 전체로 공유되어 버립니다. 큰 집단이 가지는 사고의 영향을 작은 집단이 받는 셈입니다. 그렇기에 집단의 대다수가 사회 전체를 위한 정상적인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N번방이라는 집단 내에서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집단의 인지 왜곡이 진행되었습니다. 성 관념이 극단적으로 왜곡된 구성원이 모여 폐쇄적이고 은밀한 집단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그 집단 내로 일부 왜곡이 덜한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그 폐쇄적인 집단 내에서 공유된 극단적인 정보와 영상에 영향을 받습니다. 피라미드식 구조를 통해 추가적인 혜택까지 주어지게 되면서, 집단 전체가 가지는 인지의 왜곡은 더욱 심해집니다.

이러한 상황은 과거와 현재 속에 존재해온 극단적인 정치 집단이나 다단계 사기 집단의 형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집단적 인지 왜곡이 이번 N번방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했습니다.

### 사회 전체의 문제

다만, 왜 큰 사회의 힘이 N번방 사건을 미리 방지하지 못했느냐는 여전히 숙제로 남습니다. 아무리 N번방이 폐쇄적인 환경이라 하더라도, 극단적 범죄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전체 사회는 이 문제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 전체가 가진 성 관념도 일정 부분 왜곡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성 관련 범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사실 N번방 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규모나 사건 정도가 조금 다르다뿐이지, 100만 명 회원의 불법 디지털 성 범죄 사이트인 소라넷 사건이나 자살로 생을 마감한 연예인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등 이전에도 유사한 상황은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때마다 일부 단편적인 처벌을, 그것도 솜방망이식 처벌로 상황을 때워왔습니다. 심지어 연예인의 성폭력 재판에서 심하게 낮은 수준의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낸 판사에게 N번방 사건의 재판을 맡기려 했던 건, 우리 사회 전반이 가진 성 인식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죽음

성 관련 집단적 인지 왜곡이 발생하기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와 소통이 배제된 폐쇄적인 환경입니다. 폐쇄적인 환경에서는 나와 그 집단 내의 우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N번방에서도 그렇지만 그 집단 내에서 나와 또 다른 내가 있을 뿐, 피해자는 없습니다. 피해자나 그 주변 사람의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생각해본다면 보일 수밖에 없는 끔찍한 상황이, 가해자 집단 안에 갇혀 생각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공감 능력입니다. 관계와 소통이 배제되면 공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밖에 생각하지 않는, 일방적이고 단편적인 관계에만 익숙해져 있는 “사회적 죽음”은 N번방과 같은 집단적 인지왜곡을 가지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었던 셈입니다.

## 젊은 나이에 나타난 성 관련 인식의 손상

N번방 사건을 특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건 가해자의 어린 나이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청소년과 젊은 층에서 N번방 사건을 주도했고 퍼져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왜곡된 성 관념이 사회 전반적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방증입니다.

이번 사건이 일부 개인의 극단적인 일탈 행위로 치부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가 이전부터 지금까지 문제를 키워왔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어 왔는지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를 처벌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중요하고, 어린 시절부터 상호 관계에 따른 바람직한 성 관념을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교육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부 극악한 범죄 집단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을지도 모를 그 누군가, 그것도 비교적 젊은 나이의 누군가가 왜곡된 성 관념을 가지고 은밀하고 폐쇄된 집단 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이 N번방 사건의 핵심입니다. 무서운 건 지금의 상황이 지속할 때 나타날, 그다음의 N번방입니다. 어린 나이에 성 관련 인식이 손상된 현실이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 메시지를 더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자료 2. “내 잘못이 아니야” 청소년용 디지털성폭력 영상 2025.03.07

<https://ahacenter.kr/dat/%eb%84%a4-%ec%9e%98%eb%aa%bb%ec%9d%b4-%ec%95%84%eb%8b%88%ec%95%bc/>

출처- 이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자료실

-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 아래 영상을 참고하여, '온라인 도박' 또는 '판데모니움'과 같은 소셜 카지노 게임의 위험성은 어떠한 것이며, 그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할지 토의해 봅시다.

유튜브 채널: 씨리얼, “청소년 없이는 도박판이 안 굴러가요” | ASKED

“지옥 가서라도 아빠가 널 구해 올 테니까 같이 이겨 내자고”

<https://www.youtube.com/watch?v=DYfQ2ye9XqU>

- 친구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심화 활동 선정이가 비판한 텍스트에 대해 검토해 보고, 주변  
2 에서 비슷한 텍스트를 찾아 비평해 보기

7~8  
차시

- 이 소설에서 선정이는 괴테의 『파우스트』를 어떻게 비틀며,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를 비판했나요? 이와 비슷하게 여성의 성을 착취한 것으로 비판할 만한 다른 작품이 있는지 찾아보고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파우스트의 줄거리

전 2부로 되어 있는 이 극시는 맨 앞에 '헌사'와 '무대에서의 전회' 및 '천상의 서곡'이 있다. 그 중 '천상의 서곡'은 분량은 짧지만, 작품 전체의 형이상학적 의미를 요약한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천사장 라파엘의 노래로 시작되는 이 '천상의 서곡'은 구약성서 욥기의 서두와 같다. 악마인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 파우스트를 유혹하겠다고 제의한다. 주님은 "착한 인간은 설혹 어두운 충동에 휩쓸릴지라도 올바른 길을 잊지 않고 있다"고 하며 메피스토펠레스에게 파우스트를 유혹하게 맡긴다.

제1부 : 늙은 학자 파우스트는 서재에서 혼자 독백한다. 그는 모순된 두 개의 충동 때문에 번민하고 있는 것이다. 즉, 땅 위의 쾌락에 빠지고 싶은 애욕과, 천국에 올라가고 싶은 영생에 대한 기원이다. 거기에 메피스토펠레스가 나타나 땅 위의 쾌락으로 유도한다. 파우스트는 "내가 어느 순간을 보고, '섰거라. 너는 정말 아름답구나!' 하고 말한다면, 너는 나를 퐁퐁 묶어도 좋다. 그대로 나는 망해도 좋다"고 약속한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를 마녀에게 데리고 가, 어떤 여자든지 절세의 미녀 헬레나처럼 보이게 되는 마약을 먹인다. 동시에 그 약은 파우스트를 다시 젊게 만들어 준다. 늙은 학자 파우스트는 30년이나 젊어져 청년 파우스트가 된다. 파우스트는 거리에서 평범하기는 하지만 마음씨 착한 소녀 마르가레테(그레트헨)를 만나 곧 사랑에 빠지고 만다. 둘은 정원에서 사랑을 속삭인다. 그레트헨은 꽃 한 송이를 꺾어 "사랑하신다. 안 하신다. 사랑하신다"고 꽃점을 칠 정도로 순진한 소녀이다. 그러나 얼마 뒤 그레트헨은 화제의 대상이 된다. 임신한 것이다.

그레트헨의 오빠 바렌틴은 노여워하여 파우스트에게 싸움을 건다.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의 마력으로 그를 죽여 버리고 만다. 파우스트는 후회하면서 도망친다. 그레트헨은 죄책감에 사로잡히며 감옥에 갇힌다. 거기에 파우스트가 나타나 함께 도망하자고 유혹하지만 그레트헨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다. 하늘로부터 "그 소녀는 구원되었다"는 소리가 들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레트헨은 "하인리히! 하인리히!" 하고 파우스트를 부른다. 그러나 그는 메피스토펠레스에게 끌려가 재빨리 도망친 뒤였다.

제2부 : 파우스트는 독일 중세의 황제를 섬기는 몸이 된다. 파우스트는 황제를 부자가 되게 해준다. 황제는 그리스의 대표적인 미남 미녀 파리스와 헬레나를 눈앞에 보여 달라고 파우스

트에게 명한다. 파우스트는 메피스토펠레스와 서로 의논하여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어머니들의 세계'에 도착한다. 그리하여 헬레나와 파리스가 서로 사랑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파우스트는 이 과거의 환상적 세계로부터 헬레나를 빼앗는다. 뒤이어 그리스 신화의 세계에 들어가, 인두마신(人頭馬身)의 히론의 힘을 빌려 고대의 세계로 들어간다. 제3막이 되자 비로소 헬레나는 현실의 여성이 되어 파우스트 앞에 나타난다.

파우스트는 헬레나와 사랑에 빠져 그들 사이에는 오리포리온이 태어난다. 이 아이는 곧 날아다닐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오리포리온은 "자, 저를 뛰게 해주세요! 자, 저를 뛰어오르게 내버려주세요! 아무리 높은 공중에라도. 치솟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벌써 그 소원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하고 높이 날다 이카루스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다. 오리포리온의 죽음을 계기로 파우스트와 헬레나의 사랑도 끝난다. "행복과 아름다움은 즐곳 함께하지 못한다는 옛말이 섭섭하게도 이 한 몸으로 증명되었습니다"라고 헬레나는 말한다. 그리고 그 여자의 육신은 사라지고 의상과 면사포만이 그의 팔에 남는다.

그 뒤 파우스트는 "이 지구에는 아직도 위대한 일을 할 여지가 남아 있다. 놀랄 만한 일을 해내겠다" 말이다. 나는 모험적인 노력을 해야 할 힘을 느낀다. (...) 지배권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소유권도, 사업이 일체이며 명성은 허무한 것이다"고 말하게 된다. **파우스트는 황제로부터 습지를 받아 몇 백만의 인류를 위하여 간척 사업을 하려 한다.**

"자유도 생명도 날마다 싸워서 차지하는 자만이 / 그것을 누릴 만한 값이 있는 것이다 / 나는 그러한 인간의 집단을 바라보며 / 자유로운 땅에 자유로운 백성과 살고 싶은 것이다 / 그러면 나는 순간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어도 좋을 것이다 / '멈춰 서라. 너는 진정 아름답구나!'"

이 말 때문에 메피스토펠레스와 약속한 대로 파우스트는 죽는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의 영혼이 마땅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 파우스트의 시체 위에 장미 꽃송이를 뿌린다.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 하지만 장미꽃이 불꽃보다 뜨겁기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한다. 천사들은 파우스트의 영혼을 빼앗아 하늘로 올라간다. 천국에는 일찍이 그레트헨이라 불리던 속죄의 소녀가 파우스트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성모 마리아에게 간청한다. 성모는 그 기원을 들어주며 "자, 이리 오너라. 보다 높은 하늘로 오르라! 그 사람도 너인 줄 짐작하면 따라오리라!"고 말한다. 작품의 끝은 신비의 합창으로 맺어져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파우스트 (세계문학사 작은사전, 2002. 4. 1., 김희보)

==> 선정이가 비판하며 비튼 부분

==> 『파우스트』처럼 비판하거나 비틀어 볼 여지가 있는 작품(소설, 드라마, 영화 등)을 찾아 비평해 보기

- 비슷한 작품 :

- 그 작품에 대해 비평해 보기 :